담양중학교, 글로벌 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서다

Hello, e-friend로 네팔 온라인 친구 프로젝트 전개

캄보디아·몽골 등 다문화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한국-말레이시아, 'Save the Sea Turtles' 공동 수업

담양중학교(교장 윤기정)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글로벌 전남 온라인 국제교류'를 위해 'Hello! Nepali e-mail Friend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의 Sindhupalchok 지역의 Shree Sansarimai Secondary School과 온라인 교류를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교류 사업은 양국 학생이 비대면 1:1 온라인 친구로 연결하여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로 담양중 학생들은 네팔 언어 배우기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통 장신구 떨잠 만들기, 등잔 만들기, 김장문화, 담양의 관광지들을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네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춰 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네팔 학생들을 위하여 'The Salvation Army' 프로그램으로 친구들이 모은 마스크를 포함하여 학용품, 옷, 가방, 핸드크림 등을 현지 학교로 보내면서 일회성이 아닌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하며 직접 카드를 써서 보냈다.

양국의 주된 곡식인 쌀을 이용한 음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의 쌀 엿을 소개하자 네팔에서는 그들의 전통음식인 Sel Roti 만드는 방법을 알려 왔고, 우리나라 추석, 설과 같은 명절인 Dashain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네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지만 선생님이 전해주신 글들로 상호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이시준 학생은 '비록 느리게 학생들의 메일이 전해지긴 했지만 네팔의 문화와 자연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담양중학교는 교육부와 유네스코가 추진한 다문화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으로 캄보디아 몽골과 교류를 진행하였고, 유네스코학교로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현지학교 Mohamad선생님과 'Save the Sea Turtles'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온라인 수업을 주관했던 신미애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자료를 찾아가면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학생들이 환경지킴이로서 세계시민의식을 한층 더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리더스아카데미' 비대면 명사특강

유튜브 통해 '2월의 명사 송길영'편 등 오늘부터 시청가능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유근기)은 '제11회 리더스아카데미'를 24일부터 비대면 명사특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사특강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부터 단 5일간 저명인사 강연을 시청할 수 있는 코너로 마련됐다.

2월에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오픈되는 첫 강연은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의 '빅데이터, 사람의 마음을 캐다'로써,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법을 알아 본다.

한편 3월에는'즐거운 교육도시 곡성에서 업글인간 되어보기'라는 컨셉으로 유현준 건축가, 4월 고미숙 작가, 5월 채사장 작가, 6월 김경일 교수 등 명품 강연이 대기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구독인증 및 댓글 참여하기 등 깜짝이벤트도 진행한다며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5일간만 운영되는 명사특강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순천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김용택 시인 초청 특강 개최

'자연이 말해 주는 것을 받아 쓰다' 주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23일 오후 2시, 지역민과 함께하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 초청 특강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자연이 말해 주는 것을 받아 쓰다'를 주제로 매서웠던 겨울을 지나 다가오는 봄과 여름, 가을까지 섬진강의 사계절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함께 김용택 시인이 사람과 자연을 관찰하며 직접 깨달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김용택 시인은 지난 1982년 시 '섬진강1'을 발표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농촌의 삶과 농민들의 모습을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해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으며, 주요 작품으로 '섬진강'과 '맑은 날', 산문집인 '김용택의 섬진강 이야기'등을 펴내 김수영문학상과 소월시문학상, 윤동주 문학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연수과정 이수 후 분쟁조정 담당자로 위촉 예정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17일~ 19일 3일 동안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지역민 5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역의 다양한 인력이 갈등조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조정자로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진행됐다.

연수는 △회복적 정의와 관계회복 △갈등조정의 이해 △학교폭력 법률과 지침 △학교현장의 갈등조정 △학교폭력 사안 보호자 상담 △협력관계 구축과 공동체의 회복 등 이론 교육과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온라인 연수 후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대화'실습교육을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 과정 이수자는 지역에서 갈등조정과 관계회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광주시교육청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

특히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설명회도 개최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책자는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체육특기자 선발 방법 및 절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등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설명회는 최근 불거진 스포츠계 '학교폭력 미투' 사건과 관련해 담당교사에게 스포츠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학생선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 등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토론, 역할극 실연 등 다양한 체험활동 예방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주중에 보충학습, 진로체험, 독서 등 '훈련 없는 날'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조인호 기자